The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Summer 2017. No.1-13

창의성 역량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 태 욱* · 박 재 환** · 이 일 한***

국 문 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혁신을 하는 창업과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 인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인지하였고 기존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함께 창업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창의성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량 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교육을 통한 창업의지의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량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1개월동안 전국 대학생 393개의 표본으로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협업적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역량 교육의 효과로 인하여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대한 긍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회적지지(부모의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사회진출을 위한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지지가 보다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 대학에서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창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창의성 역량교육,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사회적지지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창의성 부분에 대한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중심으로 답이 있는 기존의 교육체계 속에서는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그럼으로 최근 대학에서는 창의적 발상과 도전정신이라는 영역에서 창업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다양한 이론과 실무 교과·비교

* 주저자, 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gyver003@hot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cau.ac.kr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lih2114@cau.ac.kr

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리더로 교육시키고자 하고 있다. 대학에서 창의성 역량 함양과 더불어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의지를 높이게 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컸다. 정부는 창의성을 함양하는 창업교육과 창업가 정신 함양이 국가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문희(2016)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시키며, 향후 기업의 핵심 인재, 창업, 협회 활동에 필요한 역량함양과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질적으로 창업교육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인재,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적 접근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다양한 진로가 있다.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취업이고, 둘째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해보는 과정으로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을 외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창의성 역량교육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창업의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량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를 살펴본 연구가 적으며 본 연구는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의 효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부모의지지를 통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에 주안점을 뒀다.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사회적지지 조절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의 보다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정책, 전략등에 대해서 새롭게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진한 올바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2.1 창의성역량 교육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창업 활성화이다. Wennekers et al.(2005)에 의하면 창업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창업지원을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가치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Vygotsky(2004)는 창의성에 대해서 한 개인의 내면의 정신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과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가 역량을 함양해야하며 그중에서도 대학생에게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창의성 역량을 본 연구에서는 강조하고자 한다.

Piascik(2015)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비즈니스, 가족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Lippl(2013)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능

력은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aird & Stull(1992)은 대학에서 졸업 후에도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ft, Israel, & Field(2010)의 연구에서 협업 능력을 팀워크, 그룹작업,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일하는 것이라 하였다. De Bono(1995)의 연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으로 창조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Morris et al.(2013)은 창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창업가역량을 제시하였다. 창업역량은 과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태도, 행동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역량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Zhao, Seibert, & Hills, 2005).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기업가적 자질과 창업가 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자기효능감, 창업의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연구를 하고자 한다.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Zimmerman(2000)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업에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개념으로 자기조절 효능감, 과업도전감, 자신감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수행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역량에 대한 확실성이다. 자신감이란 인지된 능력에 대한 강도, 믿음으로서 구체화된 수준보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의 강도를 말한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확신이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 정도라고 한다. 대학생들은 새로운 과업에 도전하기 보다는 편한것과 안정된 것을 선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창업교육에서는 항상 새로운 과업을 주며 창의적인 인재 함양을 위해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도전적인 과업과 구체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며(Latham, Winters & Locke, 1991),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향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고, 편하며 조절 가능한 쉬운 과제만을 선호하며 선택하려 행동한다(Bandura, 1977).
자신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기능이 필요하다. 즉, 자기-관찰을 통해서 또한 자기-판단 인지과정 뿐만 아니라 자기-반응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1993).

2.3 창업의지

창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모델들이 많지만 창업의지에 연구를 살펴보면 설득심리이론에서 창업이벤트 모델에서 시작한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이 대표적이다. 또한 창업이벤트 의지기본모델, 창업태도지향, 창업잠재모델, 데이빗슨 모델 등으로 창업의지 모델이 발전하게 된다.
유연호와 양동우(2008)는 창업관련 전문교육을 통하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 갖춘 적극적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청년들은 창업의지와 성취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Ertuna & Gural(2001)는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지를 촉진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정두식(2012)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데 창업교육 횟수, 창업교육에 대한 경험여부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You & Yang(200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창업 강좌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문화가 청년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우진 등(2013) 대학의 창업교육품질 요인은 대학생들로부터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 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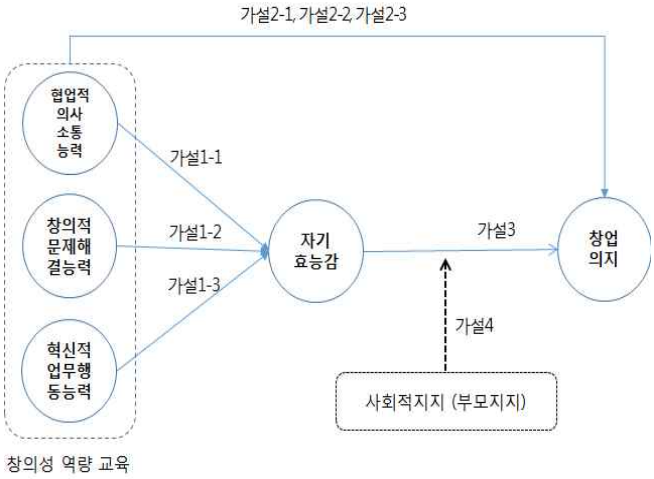
2.4 사회적지지

대학의 창업교육은 정부중심으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확산·보급하고 있다. 창업강좌에서 비롯해서 창업동아리, 캠프, 경진대회, 시제품 제작, 학생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하며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포함한다(Cohen & Hoberman, 1983). 김경욱과 조윤희(2011) 연구에서는 실제 로 많은 대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관련해 부모나 중요한 타자와의 갈등을 경험하면 할수록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결과를 밝혔다. 특히 세계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학생의 사회진출을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활동이 불안정한 미래, 실패율이 높은 상황속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회적지지를 받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친구 이외에도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지지는 취업과 창업활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부모의 지지가 어떻게 창업의지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 창의성 역량인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또한 창의성 역량이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창의성 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설과 함께 크게 다섯 가지 부분과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을 통해 함양된 창업가정신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을 통해 고취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창의성 역량 교육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의성 역량 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사회적지지는 조절효과 역할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9월 6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425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32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39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30명(58.5%), 여학생이 163(41.5%)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40명(10.2%)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2학년이 98명(24.9%), 3학년이 148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 107명(27.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한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43명(10.9%), 상경계열 78명(19.8%), 공학계열 157명(3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81명(20.6%), 기타 예체능 등이 34명(8.7%)순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 중에는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경험이 있는 학생이 376명(95.7%)으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이 17명(4.3%)으로 나타나 대학생 시절에 기초적인 사회경험을 대부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여자의 학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 이하 3명(0.8%), 2.1～3.0학점인 학생이 59명(15%), 3.1～3.9학점인 학생이 283명(72%)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집중되어있으며, 4.0 이상은 12.2%로 고루 분포되어있다.

각 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기에 창업교육 수강 동기에 대한 총 6개 분류로 구분했다.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수강한 학생이 129명(32.8%)으로 꽤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134명(3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는 주위추천 44명(11.2%), 지원 혜택이 많아서가 8명(2%),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밝힌 학생이 60명(15.3%), 시간표 때문에 수강을 신청한 학생이 18명(4.6%)이었다. 창업동아리 활동한 경험 여부를 살펴봤더니 대략 219명(55.7%)이 경험이 있었고, 174명(44.3%)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창업 33명(8.4%), 취업 144명(36.6%) 취·창업 모두를 고려한 학생이 216명(55%)으로 나타났다.

4.2. 구성개념의 정의와 측정

4.2.1. 창업교육의 창의적 역량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의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지은림·주언희, 2012; Katleen et al., 2011; Kim, 2012; Lee, 2014; MacKinnon, 1962; John-Steiner, 2000)들에서 개발한 설문을 토대로 변영조 외(2014)의 협력적 의사소통능력 5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5문항,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5문항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7)와 홍현경(2012)의 연구에서 개발하고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였고, 자기조절효능감에 문항별 5문항을 사용하였다.

4.2.3.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Nolten(1994)(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김지혜(1998)가 번안하고 이현희(2008)가 재구성한 척도를 창업활동에 맞춰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모의 지지를 대표적인 사회적지지 변수로 선정하여 3개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4.2.4. 창업의지

창업의도는 Liñán and Chen(2009)의 다섯 개의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항목으로 창업의도를 묻는 척도(Kuckertz & Wagner, 2010)보다 다양한 측면의 창업의도를 측정할 수 있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s: PLS)을 이용하는 R 패키지인 plspm이 사용되었다. PLS(Partial Least Square)는 LISREL, EQS, AMOS 등의 구조 모델 분석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샘플 수에서도 복잡한 인과모형의 설명력을 잘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모형과 변수의 경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Chin, 1998).
PLS에서 구조 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 및 부호,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결정계수 값을 통하여 검증된다(Chin, 1998). 한편,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재표본(Bootstrap Resampling) 절차를 수행하였다(Cotterman & Senn, 1992).

Ⅴ. 실증분석

5.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사용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복합신뢰도는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0.7 이상이 평가기준이고, 평균분산추출(AVE)은 구성개념에 대하여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며 0.5 이상이 평가기준이다. 한편,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Yu, 2012; Chin, 1998; Fornell & Larcker, 1981).
<표 1>와 같이 측정모형에서 각 차원의 AVE가 0.5 이상,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63~0.91 사이이며(0.7 이상이 바람직함),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으로서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 >1.965, $p < 0.05$)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Yu, 2012;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2). <표 1>에서 t-값은 부트스트래핑(표본 수 500)을 통하여 나온 결과이다.
<표 2>와 같이 측정모형의 경우에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인 0.679(협업적 의사소통 능력과 혁신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0.679)2=0.461보다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의 AVE(0.714)와 혁신적 의사소통 능력의 AVE(0.633)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2; Fornell & Larcker, 1981; Hulland, 1999).

<표 1> 잠재변수에 대한 표준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t-값 및 신뢰성 지수

잠재변수	측정항목	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값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 α	AVE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창업교육으로 팀원들과 협업 진행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었다	0.868	0.017	51.106	0.926	0.900	0.714
	창업교육으로 문제해결 할때 팀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	0.867	0.017	50.391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팀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	0.849	0.017	50.547			
	교육을 통해 팀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	0.810	0.024	33.890			
	팀원들과 과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즐기게 되었다	0.830	0.025	32.72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여러 각도로 생각 하도록 교육받았다.	0.800	0.021	37.760	0;901	0.862	0.644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0.812	0.022	36.529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타당한 결론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0.823	0.021	39.905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0.825	0.018	44.668			
	발생한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었다.	0.752	0.030	25.073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적 결과물로 만들도록 교육받았다.	0.805	0.024	33.181	0.896	0.855	0.633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안하도록 교육받았다.	0.849	0.020	43.238			
	어떤 일을 할때 다양한 도구나 기법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았다.	0.824	0.022	36.881			
	일 처리방식에서 나만의 아이디어가 반영하도록 교육받았다	0.754	0.042	18.159			
	현재 소속(학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교육받았다.	0.742	0.036	20.447			
자기 효능감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0.809	0.026	30.816	0.855	0.786	0.539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잘 진행한다.	0.630	0.052	12.093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0.691	0.044	15.628			
	맡겨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0.703	0.043	16.410			
	어려움이 있을때도 포기하지 않고 잘 조율하면서 노력한다.	0.820	0.020	41.759			
사회적 지지	부모님은 내가 하는 창업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0.791	0.052	15.210	0.839	0.706	0.613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다.	0.788	0.055	14.248			
	부모님은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0.769	0.056	13.828			
창업의지	나는 창업교육을 받은 후 창업을 해볼 생각을 한적 있다.	0.865	0.024	36.696	0.935	0.912	0.743

	나는 창업교육 이후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0.907	0.014	64.226			
	나는 창업교육 받은 후 창업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	0.903	0.012	76.505			
	나는 창업교육 받은 후 창업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생겼다.	0.871	0.018	48.067			
	창업교육 받은 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0.753	0.030	25.094			

<표 2>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1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0.845					
2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0.628	0.803				
3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0.631	0.679	0.796			
4	자기효능감	0.327	0.359	0.311	0.734		
5	사회적 지지	0.315	0.353	0.273	0.230	0.783	
6	창업의지	0.348	0.391	0.374	0.254	0.320	0.862

주: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표 3> 가설설검증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검증결과
가설1-1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자기효능감	0.143	0.074	1.945	채택
가설1-2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자기효능감	0.221	0.071	3.117	채택
가설1-3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자기효능감	0.071	0.078	0.098	기각
가설2-1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창업의지	0.076	0.063	1.206	기각
가설2-2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창업의지	0.146	0.072	2.036	채택
가설2-3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창업의지	0.150	0.074	2.016	채택
가설3	자기효능감 → 창업의지	0.087	0.051	1.731	채택
가설4	자기효능감*사회적지지 → 창업의지	0.133	0.069	1.934	기각

5.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5.2.1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PLS는 내생변수 설명력 최대화이며,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 최소화가 목적이며 AMOS나 LISREL 등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et al., 2010).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통하여 판단한다 (Chin, 1998; Hulland, 1999; Tenenhaus et al. 2005).

첫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결정계수 R2값을 예측적합도로 사용하며,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내생변수의 R2값을 살펴보면 자지효능감 0.15, 창업의지 0.22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구조모형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2의 평균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 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산출하며, 상(0.36이상), 중(0.25～0.36), 하(0.10～0.25)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346로 나타나 GoF의 평가기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된다.

5.2.2 가설검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여 각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Cotterman & Senn, 1992).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값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 t-값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요약하였다.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증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α=.05에서 $|t| > 1.645$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Yu, 2010).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t=1.945)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2을 검증한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t=3.117)이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3을 검증한 결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t=0.098)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t=1.206)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2을 검증한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t=2.036)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3을 검증한 결과 혁신적 업무능력(t=2.016)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가지효능감(t=1.731)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4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로간 유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t값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1.96이 된다(Hair 등, 1992). 검증한 결과 가설 4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Ⅵ. 결론

대학에서 진로의 다양화 측면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방편으로 창업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역량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조절효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창의성 역량 교육의 효과에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지 사회적지지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 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에 부분적으로 긍정의 영향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지만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둘째, 창의성 역량 교육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되었지만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은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의 창업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 내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각 대학마다 전체 대학생 수의 비해 아주 미비한 수준이며 일부학생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실질적인 창업의지로 이어지기 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한 취업의 스팩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경향이 많다. 그럼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의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의성 역량 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할 필요성과 창업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진출을 위한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부모님들의 지지가 보다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대학에서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특히 부모님의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창업의지를 표출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가까이에서 반대를 하는 계층이 바로 부모님들이기 때문이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교육이다(Diffley, 1982).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 교육,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화, 트랜드, 패러다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부모 창업교육에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욱·조윤희(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김문희(2016).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글로벌 리포트

변영조·김명숙·양영석.(2014).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연구. *벤처창업연구*, 9(4), 77-801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8, 105-131.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인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1(5), 2347-2368.

정두식(2012). 대학생의 창업교육 선호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연구. 경영교육연구, 27, 373-394.

지은림·주언희(2012). 창의적 인재 역량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 교육평가연구, 25, 69-94.

홍현경(2012). 자기효능감이 직무 착근도,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특 1급 호텔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jzen, I.(1991).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Chin,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Marcoulides, G.(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5-336.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Cotterman, W., & Senn, J.(1992).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hichester, John Wiley&Sons.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air, J., Sarstedt, M., Ringle, C., & Mena, J.(2012). An Assessment of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3), 414-433.

Hulland, J.(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95-204.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524-539.

Latham, G. P., Winters, D. C., & Locke, E. A.(1991). Cognitive and motivational mediators of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n performa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Tenenhaus, M., Vinzi, V., Chatelin, Y., & Lauro, C.(2005).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48(1), 159-205.

Vygotsky, L. S.(2004).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childhood. Journal of Russian & East European Psychology, 42(1), 7-97.

Wennekers, S., van Wennekers, A., Thurik, R., & Reynolds, P.(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93-309.

Yu, J. P.(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 Hannarae Publishing Co.

Zimmerman, B. J.(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Boekaerts, M., Pintrich, P. R., & Zeinder, M.(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CA: Academic Press.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to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hn, Tae Uk* · Park, Jae Hwan** · Lee, Il han***

Abstra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importance of creative talent became more and more important, we recognized the urgent need for start-ups to innovate new growth industries and creative talents to lead these eras.And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mphasized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necessity of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affects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r college students. Especially, research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ducation is very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reativity competence education on the will of entrepreneurship and empowerment of social support. For this purpose, 393 college student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for 1 month from August 2016.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bility of communicative communic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 - efficacy. On the other hand, innovative work behavior abilities did not directly affect self-efficacy. In addition,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up. Collaborative communication skills, however, did not directly affect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Self - 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of founding.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self-efficacy and willingness to work was not directly affect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 of the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 - efficacy of self and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will to start 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arental support) is not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control effect of the parents. In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As well as the need to do so.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increase the willingness of young people to establish a university in the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programs not only for direct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but also for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he talents and entrepreneurship required by the age of their parents.

Keywo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Willimgness, Social Support

* Entrepreneurship Professor, Kunsan National Chung-Ang University, gyver003@hotmail.com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jaypark@cau.ac.k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